

# 두드림 모의고사 A형 정오표

## A형 1회 문제

p. 2 [4~5]의 [A] 생략됨

[A] 해당 부분

: 4번째 영지 “네, 이것도 그렇고 실은 성적도 안정적~  
부터

5번째 선생님 “전혀 한심하지 않아~ 선생님은 영지를 믿  
어.”

까지 [A]에 해당

p. 4

[9~10]의 지문 중

㉠ 중복

㉡ 받지 않아야 한다.

를

㉢ 받지 않아야 한다. 로 교체

## A형 1회 해설

(빨간 글씨가 바뀐 정답)

1	⑤	2	②	3	①	4	④	5	①
6	④	7	④	8	③	9	①	10	⑤
11	③	12	①	13	③	14	③	15	②
16	③	17	③	18	①	19	④	20	④
21	④	22	⑤	23	④	24	③	25	⑤
26	④	27	①	28	④	29	⑤	30	③
31	⑤	32	①	33	④	34	③	35	①
36	④	37	④	38	②	39	④	40	④
41	⑤	42	①	43	④	44	②	45	②

<해설지>

p. 1

4번 정답 ①을 ④로 교체

p. 1

6번 정답 ①을 ④로 교체

p. 6

33번 오답해설 ④ ‘소리를 떠나서야 복은 오직 가족일  
뿐’~

을

③ ‘소리를 떠나서야 복은 오직 가족일 뿐’

으로 교체

p. 6

36번 정답 ⑤를 ④로 교체

## A형 2회 문제

p. 15~16

45번의 ㉠~㉣이 본문에 표시 안됨.

p. 15

6번째 줄,

“㉠오리알이지. 비록 오리알일망정 나는 그 피이판을 대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절이라도 하고 싶어지거든…….”

9번째 줄

“㉡존경이라니……, 존경할 요리란 것도 있나?”

16번째 줄

“㉢오리알에 대한 조예가 매우 소상하신데…….”

p. 16

8번째 줄

“㉣그저 썩지만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 못할 풍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,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지…….”

33번째 줄

“㉤썩는다는 말에 어폐(語弊)가 있긴 하지만, 이를테면 새우젓이니, 멸치젓이니 하는 것갈 등속도 생짜 제 맛이 아니고, 삭혀서 내는 맛이라고 할 수 있지…….”

‘피판문답’ 각주 추가

\* 연소(燕巢) : 물고기나 바닷말을 물어다가 침을 발라서 만든 것으로 중국 요리의 상등 국거리

\* 문리(文理) :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힘. 글의 뜻을 깨달아 아는 힘.

## A형 3회 해설

(빨간 글씨가 바뀐 정답)

1	㉡	2	㉣	3	㉢	4	㉢	5	㉡
6	㉤	7	㉢	8	㉡	9	㉢	10	㉤
11	㉢	12	㉤	13	㉤	14	㉠	15	㉠
16	㉤	17	㉢	18	㉠	19	㉢	20	㉡
21	㉤	22	㉤	23	㉢	24	㉤	25	㉡
26	㉡	27	㉢	28	㉣	29	㉢	30	㉤
31	㉡	32	㉠	33	㉠	34	㉡	35	㉢
36	㉣	37	㉠	38	㉤	39	㉣	40	㉢
41	㉤	42	㉢	43	㉤	44	㉢	45	㉠

<해설지>

p. 1

3번

오답해설 전체 교체

① 진행자는 ‘미소를 지으며’, ‘소리를 높여’와 같은 반언어적·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작가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.

② ‘개인 블로그에 썼던 글로 책까지 출간하게 되셨단 말씀이시죠?’를 통해 이전에 한 작가의 말을 요약·정리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④ 작가는 ‘손을 내저으며’, ‘고개를 끄덕이며’와 같은 몸짓언어를 통해 공감여부를 표시하고 있다.

⑤ ‘인기 비결이랄 것 ~ 전 충분해요’를 통해 겸손하고 솔직한 표현을 하는 작가를 확인할 수 있다.

p. 8

41번 정답 ㉣을 ㉤로 교체